

[TV]

TV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그룹 SS501, 일본 정복 대장정 첫발

16일 오사카서 콘서트 열어... 3천여팬 기립박수 열광의 무대



“와타시다치 더블에스 고 마루 이치 데스(우리는 SS501입니다).”

남성 5인조 그룹 SS501(김현중·김형준·김규중·박정민·허영성)이 16일 오후 6시 일본 오사카 국제회의장 그랑큐브 메인홀에서 열린 'SS501 재팬 1ST 콘서트-스텝 업(STEP UP)' 무대로 본격적인 일본 진출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 공연은 내년 1월13~14일 5천석 규모의 도쿄 국제포럼에 이어 나고야·삿포로·후쿠오카를 돌고 난 후 다시 도쿄에서 막을 내리는 대장정의 신호탄이다. SS501은 국내에서 두 장의 싱글을 냈고, 일본에선 내년 봄 데뷔 싱글을 선보인다. 일본에서 음반 한장 안냈지만

이날 3천석 공연장은 SS501의 상징색인 ‘필 라이트 그린’ 발광봉으로 가득 메워졌다. 신승훈·비·세븐 등의 공연 때보다 팬들의 열광대도 낮아 의외였다.

17세 여고생 마에다 미치코 씨에게 ‘다른 한국 가수에 비해 SS501의 팬들이 젊은 이유’를 묻자 “SS501은 아직 일본에서 데뷔는 안했지만 우리 이미 한국 인터넷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멤버들의 활약을 알고 있다”며 “김현중의 카리스마 있는 표정, 박정민의 귀여운 미소, 허영성의 목소리가 무척 좋다. 아사시, 카툰 등 일본의 아이돌 그룹과는 또 다른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우주에서 폭발하는 섬광 영상이 흐른 뒤 무대 앞 환광이 떨어지자 관객들은 일제히 기립해 발광봉을 흔들었다. 한국에서 원정 관람 온 70여 명의 팬들도 각 멤버의 이름을 부르며 한·일 연합 응원전을 펼쳤다.

1시간40분 동안 펼쳐진 이날 공연엔 SS501의 히트곡과 10월 중순 한국에서 발표할 정규 1집 신곡, 히트곡의 일본어 버전, 멤버들이 즐겨 부르는 팝송으로 꾸며졌다. 히트곡 ‘파이터(Fighter)’ ‘패션(Passion)’으로 오픈 무대를 장식한 SS501은 정규 1집에 수록될 신곡 ‘라디오스타(Radio star)’ ‘스카이(Sky)’ ‘바이 바이 베이비(Bye bye baby)’를 차례로 휘둘렀다.

김규중은 “한국 콘서트 때 일본 팬들이 많이 왔다”며 “그때 ‘라디오스타’와 ‘바이 바이 베이비’ 두곡을 공개했는데 오늘 일본에서 ‘스카이’를 처음으로 노래한다. 한국 팬들에게도 들려주지 않은 곡으로 일본 팬들의 사랑에 대한 답례”라고 소개했다.

Living TV 포인트 플레전트 (오후 3시 50분) - 크리스티나와 마을 사람들간의 갈등이 심해진 가운데 마을에는 불길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난다. 급기야는 마을의 사랑...

케이블·위성TV 18일

Large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MBC, SBS, E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PBC 광주광역시방송 - 98.9 FM, 99.5 MHz

TBN 교통방송 - 98.9 FM, 99.5 MHz

BBS 불교방송 - 98.9 FM, 99.5 MHz